

21세기를 대비하는 사료산업의 영향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차장

도전받는 축산업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지 3년째를 맞고 있는 금년 하반기부터 돼지고기·닭고기에 대한 수입물량 제한조치가 완전철폐되고, 양돈·양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등 이른바 “축산업의 개방화” 조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수십여년동안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오던 축산물의 수요도 최근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생산·조달되던 축산물에 대한 보호장벽이 없어지고, 그동안 구축해 놓았던 국내

축산업마저 잠식될 위기에 놓여지게 되자 앞으로 21세기를 맞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대내외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면서 국제경쟁력 있는 축산물을 생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축산물 생산의 기초적인 생산자재가 되고 있는 배합사료를 보다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축가에게 공급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료산업 성장의 한계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그동안 축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해 왔다. 전세계 경제가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해 신음하던 79~80년을 지나고는 단한번도 배합사료 생산이 감소하지 않는 진기록을 보이며 두자리수의 고도성장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같은 성장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금년들어 지난 9월말까지의 배합사료 생산량이 1,153만4960톤으로 지난해의 1,159만8370톤에 비하여 0.6%나 감소하였다. 비교적 적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지난 십수년동안 단한번도 뒷걸음질쳐 본 경험 없는 사료업계의 입장에서는 줄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년의 생산량 감소는 과거 80년대 이전의 일시적인 생산 감소나 증가를 둔화와는 달리 90년대 이후 우려해오던 장기적인 수요정체의 시그널로 보인다. 이는 점에 서 더욱 업계를 긴장시킨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축산물 생산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혼·배합사료 생산량도 축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던 지난 1988년의 2,643만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었던 점을 상기해볼 때 6~7년 간격을 두고 일본을 뒤따라가는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전망하기란 어렵지 않다.

1996년 현재 일본의 국민 1인당 사료생산량이 198kg으로 우리나라의 346kg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축산물 수입증가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합사료 생산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합사료 생산량 감소 및 축산물 수입증가 추세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축산업 및 사료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미 최근들어 높은 환율과 국내자금시장의 악화, 판매부진등으로 인해 일부 중소사료업체가 법원에 화의신청을 내는가 하면 자체 판매력에 한계를 느낀 일부회사는 다른회사의 제품을 자기공장에서 생산해주는 임가공업체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축산진흥이라는 큰 우산 속에서 안주해오던 사료산업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자구노력

1980년대 후반부터 저성장시대에 돌입하기 시작한 일본의 사료산업의 경험은 지금의 우리사료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에 놓여있던 80년대 일본의 사료업계는 지나친 물량판매 경쟁에 치중할 경우 결국은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공감

대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자구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일본의 혼·배합사료 연구회이다.

일본내 축산·사료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자기회사만 생각하던 이기심을 버리고,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체제정비 및 구조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주검토내용은 사료원료를 사료공장까지 반입할 때까지 발생하는 유통코스트, 공장에서의 생산비용, 제품수송시의 유통코스트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여러가지 방안이 강구되었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물류비용에 대한 절감노력이었다. 대형트럭의 활용, 야간수송의 활용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벌크효율도 높이고 배송수단의 개선 노력과 함께 도로정비등 환경개선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상적유통형태의 개선도 지적하면서 복잡한 유통경로로 인한 고비용 구조하에서의 판매, 수급, 가격사양관리, 경영등을 효율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간소하고 효율적인 상적유통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대도시 인근의 축산단지가 점차 내륙 깊숙히 이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사료공장의 입지도 축산지역에 인접하고 원료의 대량반입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하여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저비용 구조로 바꾸어 나갈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밖에도 생산비용을 줄여나

21세기 대비, 낙농육우산업발전을 위한 2가지 과제 ⑥

가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춘 수위탁 생산과 제품수 등의 감축을 통해 전문화, 특성화하고 불필요한 시간손실(Loss Time)을 줄여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배합사료 수요감소와 시설확장에 따른 가동율저하를 막기 위해서 신규업체의 사료산업 참여 시에는 Scrap and Build 원칙을 정하여 기존공장을 인수한 후 증개축 하는 것만 허용해왔다.

이같은 80년대 일본의 고심은 현재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료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해마다 신규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요정체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도 고비용 구조화 되어있는 물류비용과 원료반입 및 제품수송상의 어려움이 점차 성장의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이다.

원료수급 불안정의 심화

다른 한편 대부분의 사료용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산업은 근본적으로 국제곡물시장의 수급변화가 가격변동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미 최근들어 수년동안 경험했듯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가들의 공급감소는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을 가져오고, 국내 사료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영향은 사료업계에 그치지 않고 축산업계에 까지 사료가격 인상으로 파급되어

1. 한국의 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천톤)

구분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 타	계
80	1,871	769	513	306	1	3,462
81	1,842	761	470	414	1	3,490
82	1,979	1,150	592	692	4	4,419
83	2,245	2,013	709	870	12	5,851
84	2,064	1,987	852	1,072	7	5,984
85	2,309	1,923	994	1,209	4	6,451
86	2,639	2,178	1,208	1,624	25	7,675
87	2,933	2,953	1,404	1,673	54	9,018
88	2,947	3,603	1,608	1,511	196	9,767
89	2,922	4,071	1,718	1,561	128	10,403
90	3,274	3,550	1,789	1,666	144	10,425
91	3,601	3,889	1,864	1,917	210	11,482
92	3,583	4,437	1,956	2,352	333	12,662
93	3,610	4,397	2,054	2,662	304	13,027
94	3,487	4,477	2,056	3,194	331	13,545
95	3,766	4,725	2,094	3,680	428	14,695
96	3,849	4,994	2,168	4,137	635	15,783

2. 일본의 혼·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천톤)

구분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 타	배합사료	혼합사료	총 계
80	10,692	6,339	2,323	2,724	116	21,387	864	22,252
81	10,837	6,257	2,295	2,653	117	21,102	1,057	22,159
82	11,400	6,233	2,376	2,653	134	21,693	1,184	22,877
83	10,865	6,330	2,521	2,735	22	22,569	1,711	24,280
84	10,947	6,466	2,521	2,768	88	22,821	1,673	24,494
85	11,044	6,957	2,537	2,782	89	23,479	1,755	25,233
86	11,347	6,912	2,581	2,810	83	23,884	1,920	25,804
87	11,594	7,049	2,581	2,966	86	24,403	2,030	26,433
88	11,609	7,148	2,641	3,037	87	24,554	1,883	26,437
89	11,417	7,212	2,916	3,005	86	24,636	1,565	26,201
90	11,197	6,981	3,004	3,202	94	24,479	1,383	25,862
91	11,322	6,783	3,073	3,423	90	24,691	1,328	26,018
92	11,236	6,742	3,153	3,525	94	24,749	1,275	26,024
93	11,256	6,799	3,150	3,584	93	24,883	1,253	26,136
94	10,835	6,445	3,117	3,611	93	24,101	1,155	25,256
95	10,793	6,166	3,245	3,525	97	23,826	1,041	24,866
96	10,789	6,110	3,336	3,454	88	23,777	877	24,702

축산불황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앞으로 21C에 들어서면 서 이같은 불안정 요인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된 미국 신농업법은 농민들로 하여금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재배작물들을 자유롭게 선택케 함으로서 곡물시장에 대한 미국정부의 원충기능을 더욱 약화시켜 가격등락이 극심해지고, 공급예측마저 쉽지 않게 하고 있다.

또한 WTO 출범이후 각국에서 농업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오던 각종 보조금 제도도 철폐됨에 따라 곡물의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료곡물의 장기적 수요는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제3국가들의 인구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선진농업국가들의 생산증가 및 제3세계 국가들의 농업생산 증진노력이 없는 한 세계적인 곡물수급은 만성적인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안정적인 원료수급의 필요성

따라서 앞으로 21C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나가기 위해서는 사료가격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널뛰기식 가격구조 하에서는 누구도 장기적인 전업축산을 도모해 나갈 수가 없다.

축산업 기반의 안정화라는 차원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사료업계가 사용할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장기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개별적으로도 점차 선물거래방식을 도입하여 가격등락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회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떻게든 사료가격이 안정되어져야만이
축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며,
양축농가들도 확신을 갖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일본과 같은 사료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립과 보전에 따른 이해관계를 극복할 사료업계와 축산업계의 공감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차원에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원료확보 및 가격수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현물구매 중심의 구매방법으로는 곡가등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가 없으며, 만성적인 가격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사료업계가 사용할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장기계약(long term contract)을 추진해 나가고, 개별적으로도 점차 선물거래(Future trading)방식을 도입하여 가격등락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회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떻게든 사료가격이 안정되어

져야만이 축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며, 양축농가들도 확신을 갖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개방과 경쟁의 파고속에서 사료업계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업계의 당면한 문제점을 간과한채 사료산업만의 자구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실효를 거둘 수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사료업계의 모든 자구노력은 근본적으로 축산업계와의 이익과 합치되어야 하며, 이는 경쟁력있는 축산물 생산으로 나타나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21C 우리나라 축산업의 당면한 문제점이 곧 사료산업의 문제점이며, 사료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축산업계가 함께 풀어야만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필자연락처 : 02-581-5721)